

DIOCESE OF SAITAMA

TOKIWA 6-4-12,
Urawa-ku,SAITAMA city
〒330-0061, JAPAN
TEL:048-831-3150
FAX:048-824-3532



カトリックさいたま教区

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330-0061
TEL:048-831-3150
FAX:048-824-3532

2020년 2월 26일

사이타마 교구민들께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에 대한 교구 대응책에 대하여
(제 3 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인한 '공개 미사' 중지에 관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속에서, 이 감염증의 종식여부가 지금부터 1~2 주간이 중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감염증의 확대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모이는 집회나 이동을 피하도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쿄 교구 및 사뵈로 교구에 이어, 사이타마 교구에서도 사안엔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능한 대책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응책에 대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월 27일(목)부터 3월 14일(토)까지, 주일 미사를 시작으로 모든 공개미사를 원칙적으로 중지합니다.
2. 3월 1일과 8일의 두 번의 주일에 대해서는, 사이타마 교구 모든 신도들에게 주일 미사를 지킬 의무를 관면합니다. 당일의 성서 독서와 복음 구절들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3. 평일 미사는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미사를 제외하고, 주일미사와 같이 중지합니다.
4. 그러나, 혼배미사나 장례미사의 경우, 충분한 감염대책을 세운 후에 평상시처럼 봉헌합니다.
5. 미사 이외의 모든 행사들에서는, 규모가 작은 모임을 제외하고, 가능한 연기하거나 중지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과 함께 하는 모임 역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6.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초기대응으로서의 2 주간이 경과된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만,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매일 봉헌하는 미사를 중지하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상의 조치들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피난 조치임을, 아울러 이러한 판단에 이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신뢰를 두고, 모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감염된 이들의 빠른 회복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기를 바라면서,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청하며,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상